

# STO 법제화 급물살... 블록체인 기업과 손잡는 금융업계

(증권형토큰)

증권사, 신사업 구상 위해 접촉  
예탁원, STO 플랫폼 로드맵 마련  
“STO 유통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증권형토큰(STO)이 금융투자업계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이 포함돼 있는 등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타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STO 플랫폼 로드맵 마련에 나섰고, 국내 증권사들도 블록체인 기업과 협업해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다.

증권형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이란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의 일종이다.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STO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유사한 ‘증권발행형’과 부동산, 고가미술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형’으로 분류된다. STO는 실제 자산을 근거로 하므로 기존 ICO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가치를 평가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비브릭, 국내 첫 STO 상품...키움증권과 ‘맞손’



증권형토큰(STO)이 금융투자업계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도이미지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TO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투자계약 증권 성격이 있는 STO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세종텔레콤의 비브릭(BBRIC)이 국내 첫 STO 상품으로 출시됐다. 비브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혁신 사업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다.

비브릭은 부동산 수익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국내 첫 사례다. 부동

산 수익권을 디지털화해 이를 블록체인 분산원장과 예탁결제원 장부에 동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

특히 키움증권이 세종텔레콤, 비브릭과 손을 잡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부동산 상품 개발 및 계좌 연동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본부장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STO에 대한 금융투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STO 시장

내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굴해 업계 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적 표준에 맞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

이처럼 금융투자업계는 STO를 미래 먹거리로 놓고, 시장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5월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정책적으로 ICO, STO를 거래하는 시장 사업자를 허용할 때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그는 “거래 대상인 가상화폐와 STO의 특성은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했던 원금 손실 가능성과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증권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런 속성을 가진 거래 대상을 가장 많이 다뤄 보고 정책, 감독 당국의 지도 규제를 받으면서 경험을 쌓은 곳이 바로 증권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은 자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신규 자회사 설립을 계획 중이다.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다.

예탁결제원도 STO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

다. 또 지난해 12월 ‘STO 플랫폼 개념 검증 수행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비상장주식 증대 플랫폼 서울거래비상장을 운영 중인 피에스엑스는 비상장주식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STO를 활용한다. 이르면 7월 중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거래비상장 플랫폼 내에서 STO 거래를 개시할 방침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된 STO의 유통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적으로 증권,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기존의 증권이 토큰화돼 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적 표준에 맞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 유의할 점은 유동성이 부족한 여러 유·무형의 자산을 수익증권 등으로 토큰화해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불량자산이 복잡한 구조로 토큰화돼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자산유동화 폐단이 나타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개미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1개’ 올랐다

카카오뱅크 -38%... 가장 많이 하락  
두산에너빌리티, 유일하게 4.3%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6개월간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했다. 나머지 9개 종목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고, 순매수 금액은 8조3807억원에 달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2조1789억원), 카카오(1조8806억원), 삼성전자우(1조1796억원), 삼성SDI(8440억원), 카카오뱅크(7531억원), LG생활건강(7195억원), 두산에너빌리티(6600억원), LG전자(6228억원), 에코프로비엠(6207억원) 순이다.

상위 10종목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카카오뱅크로 5월31일 주가는 6개월 전(6만5200원) 대비 37.65% 하락한 4만650원이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순이익은 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인투자자가 6개월간 순매수한 상위 10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순매수 거래금액	2021년 12월 1일 추가	2022년 5월 31일 추가	6개월간 추가 등락률
005930	삼성전자	8,380,722,520,500	74,400원	67,400원	-9.40%
035420	NAVER	2,178,944,874,500	390,000원	288,000원	-26.15%
035720	카카오	1,880,654,277,400	122,500원	85,000원	-30.61%
005935	삼성전자우	1,179,611,517,500	68,600원	60,700원	-11.52%
006400	삼성SDI	844,007,665,500	693,000원	575,000원	-17.00%
323410	카카오뱅크	753,110,177,750	65,200원	40,650원	-37.65%
051900	LG생활건강	719,540,277,000	1,098,000원	734,000원	-33.15%
034020	두산에너빌리티	660,043,981,900	19,900원	20,750원	4.27%
066570	LG전자	622,871,614,500	120,000원	105,000원	-12.50%
247540	에코프로비엠	620,777,271,500	517,800원	505,000원	-2.47%

43.2% 증가했지만 컨센서스를 10%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출시한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초기 성과가 미미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대출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약 2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신용대출 감축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카카오뱅크는 2분기 주택담보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 4분기 개인사업자 출시 등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대출 규제와 비우호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 공급

한양, 연면적 3만344㎡ 상업시설

한양은 서울 청량리에서 상업시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는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 들어선다. 총 219실 규모로 전체 전용면적 약

1만2993㎡, 연면적 3만344㎡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단지 내부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카미유 윌랄라의 작품을 활용한 아트 라운지 5개소를 마련했다.

단지 앞에는 청량리역 일대 최대 규모인 약 3400㎡ 크기의 공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공원은 스카이라인 가운

데 위치해 청량리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양에 따르면 청량리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는 답십리로 일대에 공급된 상업시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 등은 모두 100% 계약을 마쳤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는 청량리 스카이라인의 상권을 완성하는 클라이막스가 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kdh@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130곳 증가

자산총액 1조 이상 기업 대상 확대  
해당 기업 외 8개사 자율적 공시

지난해 대비 130개사가 새롭게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해당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다.

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345개사의 2021사업년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모든 의무 제출 대상 기업이 제출기한 내에 공시를 완료했으며, 의무제출 대상 기업 이외에 8사(▲경동도시가스 ▲한솔피엔에스 ▲한솔테크닉스 ▲DB ▲포스코스틸리온 ▲한솔홀딩스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홈데코)가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공시 보고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공시기준에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 요구 등을 통해 기재 충실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기재 누락 및 오기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며, 공시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는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자산총액 1조원 이상→2024년 5000억원 이상→2026년 전 코스피 상장사) 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 예탁원, 40개사 3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지난달 대비 10.6%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3억 425만주가 6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동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3492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2억6933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만주), 씨엔알리서치(3673만주), 세림비앤지(2106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 세림비앤지(76.90%), 엘비루셈(75.61%) 순이다.

6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지난달(2억7512만주)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달(3억7166만주) 대비 18.14% 감소했다. /원관희 기자